



# 손흥민이 살아나야 기적도 꿈꾼다

다시 달리는 손흥민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로모노소프 스파르타크 훈련장에서 공식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의 득점력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라.’ 2018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였던 스웨덴과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0-1 패배를 당한 신태용호가 꺼져가는 16강 진출 불씨 살리기에 조별리그 조기 탈락 확정의 갈림길에 될 24일(한국시간) 멕시코와 2차전을 앞두고 ‘손흥민 활용법’을 고민하고 있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18일 열린 스웨덴과 첫 경기에 스리톱을 가동하면서 손흥민(토트넘)을 왼쪽 측면 날개로 기용했다. 김신욱(전북)에게 원톱을 맡기고, 오른쪽 날개에 황희찬(잡츠부르크)을 배치함으로써 좌우 측면의 손흥민과 황희찬의 빠른 돌파를 이용해 득점 기회를 노리겠다는 신태용 감독의 승부수였다.

## 유효슈팅 제로...멕시코전 최대과제는 공격 결정력 갖춘 손흥민 활용방법 변화 필요해 ‘플랜A 공격조합’ 황희찬과 투톱 출격 관심

하지만 손흥민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 기용은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 손흥민이 이 자리를 선 적이 많았다. 하지만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바람에 중앙을 파고들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손흥민의 장은 상대적으로 무더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손흥민은 스웨덴전에서 전후반 90분을 풀타임으로 뛰었지만 슈팅은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대표팀 전체 ‘유효 슈팅 제로’와 맞물려 손흥민의 ‘슈팅 0개’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멕시코전에는 손흥민의 활용 방법에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표팀은 베이스캠프인 상트페테르

부르크 북극 후 첫날이었던 19일 오후에는 1시간가량의 피로 해소 훈련만 진행했다. 20일에는 멕시코와 일전을 대비한 본격적인 전술훈련에 역점을 뒀다. 선수들은 오전 11시 훈련장에 도착한 후 400여m의 트랙을 도는 가벼운 러닝으로 컨디션을 조율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이 플랜A 공격조합인 투톱으로 복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손흥민은 공격 쌍두마차인 황희찬과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을 때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투톱으로 나선 지

난달 28일 온두라스전과 1일 보스니아전에서 들은 1골 도움 2개를 합작했다. 손흥민은 온두라스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었고, 황희찬은 두 경기 어시스트를 배달했다. 개인기와 스피드를 겸비한 멕시코에 맞서 손흥민-황희찬 듀오가 재출격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한국 축구 레전드에서 축구 해설가로 변신한 박지성 SBS 해설위원은 앞선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멕시코전 활용법과 관련해 “손흥민에 한 방을 기대하는 건 결정력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그런 능력이 팀에 없다면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손흥민의 결정력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보다 공격적인 손흥민의 활약에 기대를 걸었다. 신태용 감독이 스웨덴전 ‘슈팅 0개’ 아쉬움을 남긴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끌어올려 황희찬과 함께 멕시코의 골문을 열 공격 쌍두마차로 출격시키길 주목된다. /연합뉴스

## 일본 ‘남미 귀염 첫 아시아팀’ 월드컵 18경기 만에 콜롬비아 격파

일본은 19일(한국시간) 러시아 사란스크 모르도비아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H조 콜롬비아와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아시아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일본의 승리로 아시아 국가들은 월드컵에 출전한 지 80년 만에 처음으로 남미 국가에 승리했다. 일본이 콜롬비아에 승리하기 전까지, 아시아 대륙은 월드컵에서 남미에 통산 3무 14패였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월드컵에 출전한 건 1938년 프랑스 월드컵의 인도네시아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1회전에서 헝가리에 0-6으로 대패했다. 아시아와 남미의 월드컵 첫 만남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의 북한-칠레전이다. 당시 북한은 칠레와 1-1로 비긴 뒤 이탈리아를 1-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한국이 볼리비아와 0-0으로 비기기 전까지, 아시아는 남미에 6연패를 당했다. 일본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파라과이를 만나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5로 패했다. 한국도 남미 팀에는 통산 1무 4패였다. /연합뉴스

## ‘당찬 막내’ 이승우 “투지에 지지 않겠다” “내 공격포인트보다 팀이 하나가 되는 것 중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막내 이승우(베로나)는 멕시코와의 일전을 앞두고 “투지에서 지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승우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파르타크 훈련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멕시코 선수들이 투지가 좋고 파워풀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에서 누가 뛰든 투지와 기싸움에서 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격전에서 좀더 세밀하게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발탁된 이승우는 지난 18일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열린 스웨덴전에서 후반 27분 교체 투입돼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 이승우는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에 데뷔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기뻐하지만 팀이 져서 기쁨보다는 아쉬움과 실망이 좀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3승하는 것을 본적 없다”며 “아직 1패밖에 하지 않았고 아직 두 경기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팀 분위기나 사기도 끝까지



축구대표팀 이승우가 20일 오전(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로모노소프 스파르타크 훈련장에서 열린 공식 훈련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떨어지지 않겠다”며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나도 형들과 코치진을 믿는다. 남은 두 경기 쉽지 않지만 서로를 믿으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는 “선수들이 어떻게든 다 같이 한발 더 뛰면서 부딪혀주고 도와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힘줘 말했다. 지난달 A매치 데뷔전이던 온두라스 평가전에서 도움을 기록했던 이승우는

는 월드컵 무대에서의 첫 공격포인트도 욕심이 날 법하다. 그러나 이승우는 “멕시코전에서 떨지 않 떨지 모르겠지만 공격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국민의 응원과 관심을 받는 상태에서 내 공격포인트보다는 어떻게 팀이 하나가 돼 멕시코를 이길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의젓하게 덧붙였다. /연합뉴스

## 김우정 “내년엔 정규투어 진출”

### 금호중앙여고 출신...데뷔 2년만에 드림투어 첫승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올해 꼭 20위 이내로 시즌을 마쳐서 정규투어에 진출하겠습니다.” 금호중앙여고 출신 김우정(20·남도금형)이 KLPGA 데뷔 2년만에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우정은 지난 19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 컨트리클럽(파72·6,394야드)에서 끝난 KLPGA 2018 한세·휘닉스CC 드림투어 7차전에서 최종합계 11언더파 133타로 우승했다.



김우정은 지난 19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18 한세·휘닉스CC 드림투어 7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KLPGA 제공

1라운드에서 보기 1개와 버디 5개를 잡으며 4언더파 68타 공동 7위로 대회를 시작한 김우정은 최종라운드 첫 홀(파4·368야드)부터 기분 좋은 샷 이글을 날아치는 등 버디 5개를 기록하며 베테랑 김도연(28)을 1타 차로 제치고 짜릿한 우승을 기록했다. 김우정은 KPGA 정회원이자 광주시골프협회 전무이사를 역임한 김진철 프로의 딸이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5학년때 골프채를 잡은 김우정은 탄탄한 기본기를 앞세워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고교시절 아마추어 메이저대회인 제19회 대보그림배 매경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정상에 올랐고 재단법인 러시앤캐시 배정 장학회 ‘OK저축은행 세리카드 골프 장학생’으로 선발돼 지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국가 상비군으로 활동했다. 2016년 7월에 KLPGA 준회원으로 입회, 그해 8월 정회원으로 승격된 김우정은 드림투어에서 활동하며 정규투어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우정은 “1라운드 마치고 어깨에 통증이 있어 기권할까도 생각했지만, 성격이 관찮아서 편하게 스윙하자는 마음으로 최종라운드에 임했다니 스코어가 잘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상급 순위 20위까지 시드권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꼭 20위 이내로 시즌을 마쳐 정규투어에 진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며 “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스폰서 남도금형 오기중 회장님, 체력훈련을 도와주시는 김용철 보성군청 역도감독님 등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우정은 현재 드림투어 종합순위 6위권을 달리고 있으며 오는 7월 2-3일 해피니스CC에서 열리는 KLPGA 2018 KBC·해피니스CC 드림투어에 출전,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한다. /최진화 기자

## 최미선 대통령기양궁 개인·단체 금빛 활시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광주여대 최미선(4년)은 역시 큰 무대에 강했다. 최미선은 20일 광주시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36회 대통령기전국남녀양궁대회 여자대학부 개인전 결승에서 광주여대 동기 박진영(4년)에 6-2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최미선은 윤희경(인천대)에 6-0, 장민희(인천대)에 6-2, 이혜선(계명대)에 6-2 승리를 거뒀고 준결승에서 조아름(한체대)을 7-3으로 꺾어 결승에 올랐다. 최미선은 여대부 단체전에서 광주여대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2관왕의 기쁨을 누렸다. 광주여대는 대진대를 6-0으로 제압한 뒤 준결승에서 전북 우석대에 5-3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경북 안동대를 6-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고부에서는 광주체고 안산(2년)의 적수가 없었다. /최진화 기자



30m, 60m, 70m에서 모두 1위를 하며 금메달 3개를 이미 독차지했던 안산은 이날 여고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4관왕을 기록했다. 안산은 결승에서 김서영(인천부고 2년)을 상대로 6-5 승리를 거두면서 정상 기쁨을 만끽했다.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보았다. 안산, 박연경, 박세은, 홍지희가 나선 광주체고는 준결승에서 경남 진해여고에 3-5로 아쉽게 패해 결승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3-4위전에서 대전체고를 5-1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

## 달빛 스포츠교류 달구별서 열전

### 21~22일 친선경기...광주선수단 175명 파견

빛고을과 달구별 체육인들이 이번에는 달구별에서 모인다. 광주시체육회는 21~22일 대구시민체육관 등 대구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2018 광주-대구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에 참가한다. 달빛 스포츠교류대회는 2013년 양도시 간에 체결한 달빛동맹을 근거로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대구에서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검도, 하키, 핸드볼, 게이트볼 등 8개 종목 총 35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광주선수단은 선수와 동호인 등 175명이 참가한

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매년 스포츠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체육인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스포츠교류가 변함없이 추진돼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선수단을 위한 환영식은 21일 오후 6시 호텔인터볼고 엑스코에서 열리며 대구 측에서는 김승수 행정부시장 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